

사할린전투에 관한 일고(一考)

김 종 헌*

1. 서론
2. 일본의 사할린 공격 이유
3. 러시아군의 사할린 방어계획
4. 사할린 주둔 러시아 군사력
5. 사할린전투의 교훈과 성격(결론을 대신하여)

1. 서론

1904-1905년의 러일전쟁 최초와 최후의 무력 충돌 지역은 한국이었다. 제물포 해전이 실질적인 무력 충돌의 기점이었고 쓰시마해전 이후에는 대규모 군사행동이 더 이상 없었다. 또한 러일전쟁의 주된 전쟁터는 만주(滿洲)였다. 일본이 사할린(Сахалин)과 캄차카(Камчатка)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러일전쟁은 온전히 남의 나라 영토에서 이루어질 뻔했다.

러시아 영토에서는 사할린과 캄차카 두 곳에서만 러·일 양국의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연구교수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실니츠키¹⁾가 이끈 캄차카전투는 일본의 일방적 패배로 끝난 매우 소규모 전투였다. 더구나 일본도 더 이상 그곳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러일전쟁의 전반적 진행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할린전투가 러시아의 영토에서 이루어진 두 개의 전투 중 가장 규모가 컸다. 그러나 이 전투 역시 러일전쟁 전체를 놓고 보면 캄차카전투처럼 러일전쟁의 큰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사할린전투는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후퇴로 특징지어지며, 정규전이 아닌 ‘빨치산 식 항전의 총합’으로 성격 규정된다. 이런 전반적 성격과 특징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전투는 정치와 군사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할린전투의 정치적 의미는 영토할양에서 찾을 수 있다. 러시아가 사할린 방어에 실패하면서, 사할린은 전쟁 중 일본에게 점령된 러시아의 유일한 영토가 되었다. 그리고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 북위 50도 이하의 사할린 영토가 일본에게 할양되었다. 러시아 전체 면적에서 남사할린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신의 영토를 할양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패전국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빼앗긴 남사할린이 다시 러시아의 손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다. 바로 이것이 사할린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정치적 교훈이다.

사할린전투는 소규모 전투였다. 그러나 군사적 측면에서는 매우

1) 안톤 페트로비치 실니츠키(Антон Петрович Сильницкий, 1863.8.2 - 1910)는 1903년 페트로파블롭스키 군의 군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1894년부터 하바롭스크(Хабаровск)의 제10동시베리아 전열대대에 장교로 복무하면서 극동과 인연을 맺었다. 1896년 12년에 걸친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마치고 연해주 총독부 관방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러일전쟁에서 쌓은 전공으로 1905년 6월 25일 성 안나 2등 훈장을 하사 받았다. 은퇴 후에는 ‘프리암우리예(Приамурье)’지의 편집장이 되어 현지 행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그로 인해 체포당하는 경험도 했다. 1910년 하바롭스크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그 해에 사망했다.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사할린전투를 통해 보다 많은 교훈을 찾으려면 전투행위 그 자체보다는,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사할린 방어계획에 제시된 행동 요강과 러시아군 지휘부에서 하달한 명령 등이 사할린전투의 진행과정과 결말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즉, 사할린 방어계획과 명령이 사할린전투에서 러시아의 패전 원인이었던 만큼, 사할린의 방어계획, 사할린 방어부대의 군사력 편성과과정과 그 내용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사할린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군사적 차원의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사할린전투 중 러시아 각 부대들이 수행한 빨치산 식 항쟁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군의 전투행위 및 그 의미와 교훈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²⁾

최근 러시아와 일본 사료를 이용한 러일전쟁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³⁾ 그러나 사할린전투를 소개하고 있는 연구물은 국내에 많지 않다.⁴⁾ 따라서 이 글은 많은 부분 러시아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 이 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러시아 사료와 문헌에 의지하는 것이 더 합목적적이라고 본다. 이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사할린 방어계획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1903년 4월 6일부터 사할린전투가 끝나는 시점인 1905년 7월 말까지로 한다.

2) 사할린전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에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로스투노프의 전사연구소 편, 김종현 옮김, 『러일전쟁사』,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4.

3) 심현용, 『한반도에서 전개된 러일전쟁 연구』,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1. 이외에도 김원수, 조명철, 민경현 등의 학술 논문이 다수 있다.

4) 로스투노프의 전사연구소 편, 김종현 역, 위의 책. 정도에 불과하다.

2. 일본의 사할린 공격 이유

1905년 6월 3일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Николай II)가 배석하여 차르스코예 셀로(Царское село)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육군 대신은 런던주재 육군무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봄철에 일본이 사할린을 침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다.⁵⁾ 1905년 6월 22일 일본을 상대로 군사 활동 중이던 러시아 육군과 해군 총지휘관의 참모부가 프리아무르(Приамур) 군관구 참모장(Начальник штаба)에게 발송한 전문에서는 일본군 상륙부대가 1905년 7월 3일에서 동월 8일 사이에 사할린에 상륙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해 주었다. 그러나 이 전문은 일본군이 이미 상륙 중이던 1904년 7월 7일에 전달되었다.⁶⁾

러시아군 총참모부는 일본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미 때문에 사할린 침공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⁷⁾했는데, 아래에 열거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의중을 상당히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사할린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섬에 있는 자원으로 자체 방어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사할린은 당시 기준으로 채굴량이 4백만 푸드⁸⁾에 달하는 풍부한 석탄 산지인데다가 미역, 대구, 청어, 각종 연어 그리고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해삼 등 수산자원의 연간 생산량이 1백만 푸드를 넘었다. 또한 섬 전체에 걸쳐 풍부한 삼림자원이 펼쳐져 있다.⁹⁾

5) Латышев В.М.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в 1905 г.”, 『Сборник ста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85. с.55.

6) Там же.

7)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04-1905 ГГ.』. ТОМ IX. С.ПЕТЕРБУРГ. 1910, с.78.

8) 러시아의 무게 단위. 1푸드는 16.38 킬로그램.

9) 이 외에도 철, 구리, 은, 아연, 납 광산이 있으며, 석유 생산지였다. 또한 사할

셋째, 일본이 사할린을 점령할 경우 확보하게 될 정치적 이익 넷째, 알렉산드롭스크(Александровск)와 코르사코프(Корсаков) 두 지점은 사할린을 지배하기 위한 중심지이며, 예비 식량과 예비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대규모 창고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자체평가를 통해 무크덴(Мукден) 작전을 나름대로 완수했다고 판단한 일본은 근시일 내에 강화조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강화조약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면 러시아의 영토 중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사할린 원정에 착수했다.¹⁰⁾

원정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뤼순 함락과 함께 러시아의 제1태평양분함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제2태평양분함대 또한 쓰시마해전에서 괴멸되었다. 그리고 이 쓰시마해전 이후 일본함대는 해상에서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무적이 되었다. 홋카이도(北海道)에 주둔 중이던 병력은 출항 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사할린을 탐내고 있었다.¹¹⁾ 이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일본이 러시아 대륙을 침략해 들어가려 할 경우 교두보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할린이다. 사할린과 대륙을 가르는 타타르(Татар) 해협이 가장 좁은 곳은 폭이 불과 7 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하여 대륙으로의

린의 산맥이 아무르 지역의 산맥과 일치하듯 이어지기 때문에 금광의 개발도 유력시 되었다.

10) Н.А. Левицкий.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1904-1905 гг.』, М., 1938, с.311.

11) Латышев В.М. Там же. 러일전쟁 당시 가라후토(樺太), 즉 사할린 점령안이 몇 차례 제시되었다. 1904년 9월 8일 나가오카(長岡)가 사할린 공략안을 입안했으며, 1904년 3월 22일 일본 대본영에서도 사할린 원정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의 고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郎)는 사할린 점령에 적극 동조했다. 1905년 6월 일본은 미국에게 강화 알선을 제의한 후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천황의 재가로 사할린 점령에 나섰다.

병력과 물자 수송이 용이하다. 특히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일본은 남과 북 두 방면에서 러시아를 협공할 수 있게 되어 군사적으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둘째, 사할린을 점령한 일본은 러시아가 외해(外海)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러시아는 외해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러시아는 남쪽의 대한 해협을 ‘황색 보스포루스’로 명명했다.¹²⁾ 일본이 사할린을 점령하면 사할린과 러시아 본토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타타르 해협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황색 보스포루스’가 될 수 있었다.

셋째, 일본이 사할린을 점령할 경우 위와 같은 효과에 외에도, 당시로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캄차카 그리고 추코트카(Чукотка)를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해로(海路) 또한 일본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캄차카와 추코트가는 생필품 공급에 필요한 효과적 연결통로를 잃게 되면서 존립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위협의 정도와 비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에게 새로운 영토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러시아군 참모부가 예견한 바와 같이 일본은 사할린의 천연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일본은 사할린의 석탄, 석탄의 대체 연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었던 석유, 풍부한 삼림자원과 어족자원 등을 탐내고 있었다. 실제 일본 국내의 언론사들은 사할린을 점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사할린의 점령을 정당화시키려는 이데올로기를 개발하는 보수단체들이 등장하기도 했다.¹³⁾

12) ГАРФ, ф.543, оп.1, д.170, лл.20-47об. 이 외에도 많은 러시아의 사료에서 ‘황색(또는 동방의) 보스포루스’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13) В.А. Золотарев, Ю.Ф. Соколов, 『Трагед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905 гг.』, Книга II, Москва, Animi Fortitudo, 2004, с.207.

러일전쟁의 발발 이후 이런 이데올로기가 세련되어지면서 더욱 힘을 얻는 것은 당연했다.

일본은 상당히 강력하게 편성된 부대를 사할린을 점령에 배정했다. 제25보병여단, 제49보병연대, 제50보병연대, 제16보병여단, 제18기병연대, 제19포병연대, 공병부대, 1개 기관총부대, 3개 야전병원 및 기타 지원부대 등 총 병력 1만 4천명, 대포 36문 그리고 기관총 12정의 군사력으로 새로운 부대가 편성되었다. 이 부대는 제13사단으로 명명되었으며, 하라구치(原口兼濟) 장군이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¹⁴⁾ 일본은 하라구치의 제13사단을 사할린으로 운송하기 위해 가타오카 시치로(片岡七朗) 해군중장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대형수송선 20척 그리고 수송선 보호를 임무로 하는 장갑순양함 2척, 순양함 7척, 포함과 어뢰정 4척 등 총 53척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수송선단을 편성했다.

1905년 7월 5일 제3분함대로 불리는 가타오카의 수송선단이 위의 제13사단을 싣고 일본의 아오모리(靑森) 항을 출항했다. 같은 날 밤 남사할린의 크릴리온(Крильон) 갑(岬)¹⁵⁾에서는 홋카이도의 등대가 러일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7월 6일 장갑순양함 ‘노비크(Новик)’ 호¹⁶⁾ 소속의 신호수로서 크릴리온 갑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부로프(Буров)는 저녁 5시 53척¹⁷⁾으로 구성된 일본 분함대가 아니바(Анива) 만으로 향하는 항로를 잡고 크릴리온 갑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했다.¹⁸⁾ 아니바 만 연안에는 막시모프¹⁹⁾ 해군소위가 35km에 걸쳐

14) 로스투노프 외, 앞의 책, 463쪽; Латышев В.М. Там же.

15) 아니바 만의 서쪽 최남단, 즉 사할린 섬의 최남단 연안에 위치한 갑. 지리적으로 홋카이도와의 거리가 약 40km 정도이다.

16) 이 전함은 1904년 8월 코르사코프 근처에서 일본 전함을 맞아 제물포 항에서 ‘바랴크(Варяг)’ 호처럼 영웅적인 투쟁을 보여주었다.

17) 20척의 수송선 중 수송 작전에 투입된 수송선은 12척이었다. 따라서 일본 제3분함대의 수송선이 12척이었다고 기술된 러시아 연구물도 많이 있다.

건설한 7개의 신호소가 있었다. 이 각각의 신호소들은 7월 6일 밤 새도록 일본 제3분함대의 이동 소식을 통보해주었다.

일본 제3분함대는 일본을 출항한지 이틀 후인 7월 7일 사할린에 도착했으며, 그 날 아침 9시 일본군은 전함 2척의 엄호 포격 하에 메레야(Мерея)²⁰⁾라는 작은 하천²¹⁾의 하구 옆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²²⁾

러시아 벡카레비치(Беккаревич)의 민병기병대는 황색 군복을 착용한 일본군이 상륙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아르치셴스키²³⁾ 대령은 코르사코프에 있는 군수품 창고와 건물을 소각하고 솔로비요프카(Соловьёвка)²⁴⁾ 진지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러시아에서는 1812년의 ‘나폴레옹전쟁’을 ‘조국전쟁(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이라 부른다. 아르치셴스키의 명령은 ‘조국전쟁’ 당시의 모스크바(Москва)를 연상시키는 조치였다.

18) РГАВМФ, ф.417, оп.1, д, 2997, л.43.

19) 막시모프 알렉산드르 프로코피예비치(Максимов Александр Прокофьевич, 1874~?). 의용병으로 군복무를 시작했다. 1896 페테르부르크 유년보병학교의 시험에 합격했다. 1902년 시험을 거쳐 소위보의 계급으로 제10함대 함대원으로 이진했다. 1902년 ‘디아나(Диана)’ 호의 당직근무로 시작하여 1904년 2월부터는 ‘노비크’ 호에서 근무했다. 1904년 8월 ‘노비크’ 호가 코르사코프 항구 해역에서 침몰한 후, 전함에서 유용한 장비와 무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해군 부대의 지휘관에 임명되었다.

20) 메레야는 하천의 명칭이자 그곳에 있었던 작은 마을의 명칭이었다. 사할린 최대의 항구도시인 코르사코프(Корсаков)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21) 사할린에 있는 모든 강은 폭이 좁고 규모도 작다. 따라서 여기서는 천으로 표기했다.

22) В.А. Золотарев, Ю.Ф. Соколов, там же. с.206. 메레야 천 하구 근처에 있는 언덕 위에는 일본이 세운 상륙기념비가 쓰러진 상태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

23) 아르치셴스키 요시프 알로이조비치(Арцишевский Иосиф Алоизович). 1894년부터 코르사코프 지역부대의 지휘관으로 근무했다.

24) 코르사코프에서 11km 북쪽에 위치한 촌락.

3. 러시아군의 사할린 방어계획

러시아가 사할린 북부를 처음으로 점령한 시기는 아무르(Амур) 강 하구에서의 탐사가 종료되고 4년이 시간이 더 흐른 뒤인 1853년이었다. 당시에는 일본인 역시 사할린 남단에 계절 어업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할린의 법적 지위는 러시아와 일본의 공동 관할지였다. 러시아는 자신이 사할린 전도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사할린 영토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 하에 엠피미 푸타틴(Евфимий Путятин)을 전권으로 삼아 일본에 파견했다. 일본에 도착한 푸타틴은 1855년 2월 7일 시모다(下田)에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이 조약 체결 이후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었던 1875년까지 사할린 내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은 48도55분이었다.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Санкт-Петербург)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러시아는 사할린 전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러시아는 우루프(Уруп)를 포함하여 그 이북에 위치한 쿠릴열도(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전체를 일본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했다. 일본은 쿠릴열도 전도를 차지하는 대신 사할린 남부를 러시아에게 양보했다. 러시아의 이런 선택은 본토방어 차원에서 사할린이 지닌 전략적 가치가 쿠릴열도가 지닌 그것보다 앞선다는 판단에서 나왔다.²⁵⁾

위와 같은 판단에서 쿠릴을 포기하고 사할린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875년의 조약 체결 이후 사할린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적 방어능력을 제고하고자 러시아에 의해 취해진 실질적 정책이나 조치가 전혀 없었다. 이런 러시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

2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시오.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 김종현 옮김, 『쿠릴 문제. 역사, 법, 정책 그리고 경제』,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4.

는 존재했다. 즉, 첫째, 러시아는 1900년의 의화단(義和團)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보았으며, 일본은 아직 약국(弱國)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극동지역의 국경선 방어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둘째, 1900년까지 러시아는 카프카즈(Кавказ), 투르케스탄(Туркестан), 자카스피해 지역의 국경방어에 주력하고 있었다. 셋째, 의화단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관동반도와 뤄순 항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²⁶⁾

이런 이유들이 사할린을 방치한 러시아의 행위를 일부 합리화시켜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실정이 있었다. 사할린을 유형지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다. 사할린은 본토의 안전보호를 위해 쿠릴열도를 포기하고서 확보한, 전략적 가치가 큰 완충지대였다. 그런 중요한 지역에 범법자들을 집중적으로 이식해 놓는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정책적으로 범법자의 인력을 오지 개발에 활용했다. 사할린을 유형지로 만든 것도 그런 정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사할린은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 심각한 실수였다. 같은 대륙 내에서는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규모의 정규군을 파병하여 그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고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섬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대규모 병력 파견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하려면 제해권 장악이라는 전제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 섬을 정치범을 비롯한 각종 범법자로 채워놓는 것은 위험한 행위였다. 더구나 정치범 유형자들에게 전시라는 이유로 목숨을 건 충성을 바랐던 것 자체가 오산이었다.

26) Станислав Н. “Урсын-прушински, Бои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во врем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в книге 『Сахалинская и Курильск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12, с.47.

풍부한 천연자원과 수산자원, 삼림자원을 갖춘 사할린은 합리적 개발정책만 따랐다면 다수의 인구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했을 것이고, 그럼 사할린은 대륙 보호를 위한 훌륭한 전진기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할린이 유형지로 전략하면서 그런 발전과 개발의 가능성은 사라진 채, 러일전쟁이 발발한 그 순간까지도 오지로 남아 있었다. 그런 상태의 사할린에서 강력한 방어력 구축이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다.

프리아무르 군관구 참모부 역시 사할린의 연안선 길이가 2천 킬로미터가 넘는 것에 비해 인구는 3만 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유형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할린에서의 방어체제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1899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²⁷⁾ 더구나 유형지의 정치범들로는 제대로 된 방어체제를 수립할 수도 없었다.

1903년에 연해주 총독 리네비치(Н.П. Линевиц)²⁸⁾가 알렉산드롭스크와 코르사코프의 두 거점에 방어진지를 구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5월 육군대신 쿠로파트킨(А.Н. Куропаткин)²⁹⁾은 사할린을 방문한 후 리네비치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후 쿠로파트킨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사할린에 위원회를 파견했다. 사할린에 도착한 위원회는 진지 강화에 관한 두 개의 안을 제시했으나,³⁰⁾ 논의를 거쳐 세 번째의 안이 채택되었다. 즉, 1) 바다

27) 로스투노프 외 전사연구소 편, 김종현 옮김, 앞의 책, 459~460쪽.

28)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리네비치(Николай Петрович Линевиц. 1839. 1.5~1908. 4. 23). 당시 연해주 군관구 사령관, 연해주 총독 그리고 연해주 카자흐기병 지휘관을 겸직하고 있었다. 1904년 1월 30일부터 동년 3월 23일까지 만주 주둔 러시아군을 지휘했다. 1904년 10월 22일부터 1905년 3월 3일까지 제1만주군 사령관이었다. 1905년 3월 3일부터 1906년 2월 3일까지 항일 러시아육해군 총사령관을 역임했다.

29)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쿠로파트킨(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Куропаткин, 1848. 3. 29~1925. 1. 16). 러일전쟁 중인 1904년 2월 7일부터 동년 10월 13일까지 만주주둔 러시아군 총사령관 역임.

30)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할린 방어시설을 알렉산드롭스크 거점과 코르사코프 거점 등 두 개의 중심지에 집중할 것. 2) 현지 부대 중에서 알렉산드

에서 볼 때 잘 위장된 강력한 보루 시스템으로 코르사코프 거점을 강화한다. 2)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일부 진지(특히 사비나 [Савина] 골³¹) 인근의 진지)를 강화한다. 3) 코르사코프에서 블라디미로프카(Владимировка)³²를 거쳐 나이부치(Най бучи) 골³³로 향하는 도로 상에 강력한 방어력을 구축한다. 4) 블라디미로프카 촌과 그 인근에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준비해 놓는다. 5) 나이부치 골을 강화한다. 6) 특별 전초를 배치하여 나이예로(Най еро) 촌과 타흐메네보(Тахменево) 역을 점령한다.³⁴

이상의 계획안은 채택되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할린 군무지사였던 라푸노프(Ляпунов)³⁵ 육군 중장이 직접 사할린 방어계획을 작성했다. 라푸노프는 일본군이 사할린 남쪽에 상륙하여 그곳에서부터 북쪽으로 진군하면서 전투를 통해 점령지를 차례대로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사할린의 허리를 자르는 형식으로 상륙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그의

롭스크, 두이스카야(Дуйская) 그리고 티모프스카야(Тьмовская) 부대 등 총 1,160명의 병력을 섬의 북부 지역에 배치하고, 총 병력 330명으로 편성된 코르사코프 부대는 남부 지역에 전개한다. 3) 일반 주민, 종신유형수 그리고 단기유형수 등을 이용하여 총 병력 3천 명으로 구성된 14개 민병대를 조직한다. 그 중 8개 민병대는 알렉산드롭스크와 티모프스키 지구에서 운용하고, 나머지 6개 민병대는 코르사코프 지구에서 운용한다. 4) 정칙법 유형수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일련의 거점을 구축한다. 사할린에 배치된 6문의 대포 중에서 4문을 코르사코프 거점에 배치하고, 나머지 2문은 알렉산드롭스크 거점에 배치한다. 이후의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지원 받아 포병부대를 강화한다. 5) 블라디보스토크에 필수품을 예비로 축적하여, 동원과 동시에 사할린으로 수송함으로써 사할린에 대한 급양을 보장한다. Н.А. Левицкий . там же, сс.311~312.

31) 골(падь)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골짜기와 같은 곳이다.

32) 사할린의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33) 나이부치 촌 하구에 위치해 있으며, 1867년에 건설된 거점이다. 1882년부터 1887년 사이에 코르사코프와 나이부치를 연결하는 비포장도로가 부설되었다.

34)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 на 1904~1905 гг.』, М., 1938, т.9, с.93.

35) 미하일 니콜라예비치 라푸노프(Михаи́й Николаевич Ляпунов). 1898년부터 1905년까지 사할린 군무지사(지역 내 군부대를 관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주지사) 겸 사할린 지역군 사령관.

방어 작전 역시 그런 예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었다.

랴푸노프는 일본군이 사할린의 서해안에 위치한 하지(Хаджи) 갑과 아르코보(Арково) 천 하구 사이의 25km 구간에서 상륙할 것으로 봤다. 만약 일본군이 이곳으로 상륙할 경우, 알렉산드롭스크(Александровск) 거점과 틱모프(Тымов) 지구 사이의 통신이 적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북사할린에 배치된 모든 병력과 화력을 이곳에 집중 배치하려 했다. 반면 남사할린에서는 모든 병력을 솔로비요프카의 북쪽에 집결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본군이 사할린의 동해안을 통해 침략할 경우, 그들의 상륙 지점이 나이부치(Най бучи)³⁶⁾일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실제로 일본군이 그곳에서 상륙작전을 펼칠 경우, 연합부대를 블리디미로프카(Владимировка)³⁷⁾의 북쪽 지역에 배치하여 침투로 상에서 적과 격돌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랴푸노프의 위와 같은 방어계획은 아무르 군관구 참모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아무르 군관구 참모부는 일본과의 강화가 성립될 때까지 사할린을 방어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참모부는 방어전이 사할린의 연안에서가 아닌 섬의 내륙 지역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무르 군관구 참모부는 그런 관점에서 랴푸노프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훈령을 작성하여 하달했다.³⁸⁾

1. 사할린을 다음과 같은 방어 구역으로 구분하라. 즉

- a) 므가치(Мгачи)와 낄페(Нашпе) 두 지역을 연결하는 선으로부터 그 이북 지역을 북부지구로 하라.

36) 사할린의 동부 연안에 위치해 있다.

37) 사할린의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Южно-Сахалинск)에서 북쪽 40km지점에 위치.

38) Станислав Н. Урсын-прушински, там же. сс.57~58.

- b) 북쪽 지구의 시작점인 상기 선에서 남쪽으로 쿠순나이(Кусуннай)와 마누에(Мануэ)를 잇는 선까지를 중부지구로 하라.
 - c) 중부지구의 이남을 남부지구로 하라.
2. 모든 지역의 부대를 집결시키라. 북사할린의 6개 민병대와 포병을 중부지구에 배치하라. 나머지 모든 지역 부대, 남사할린의 4개 민병대와 포병을 남부지구에 배치하라. 북부지구에는 2개 민병대만 배치하라.
3. 린코프스코예(Рыковское)³⁹⁾ 지구에 있는 다음과 같은 통신 구역을 강화하라.
- a) 베르흐니 아르무단(Верхний Армудан)과 데르벤스코예(Дербенское) 구간
 - b) 두에(Дуэ)와 말로 티모프(Мало-Тымов) 구간
 - c) 아그네보(Агнево) 갑과 혼도(Хондо) 촌 구간
4. 솔로비요프가 보루를 건설하는 동시에 방어를 위해 블라디미로프카 촌으로 향하는 도로를 부설하라.
5. 일본군이 린코프스코예(Рыковское) 촌과 블라디미로프카 촌을 점령하면 대규모 빨치산 전투를 수행하라. 단 전력 차이가 많이 나면 일본군과의 접전을 피하고, 측면과 후방에서 적에게 위협을 가하라.
6. 강력한 빨치산 전투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를 위해 각 지구에는 특별임무를 띤 부대를 배치하라. 각 부대에 숙련된 지휘관을 배치하라. 각 부대에게 활동 지역을 지정해 주라.
7. 각 부대들은 지속적으로 상호 연락을 취하라. 적절한 지휘부를 선발하라. 주민들과 협력하라.

39) 현재 명칭은 키로프스코예(Кировское)이며, 티모프스키 지구에 속해 있다.

위 훈령이 라푸노프 장군에게 전달된 시점은 1905년 2월 중순이었다.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던 라푸노프 장군은 예상했던 시기에 명령이 하달되지 않자 자신이 한 번 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사할린 방어계획을 직접 작성하여 아무르 군관구 참모부로 발송했다. 즉, 라푸노프의 방어계획은 위 훈령이 하달되기 이전 시점에 아무르 군관구 참모부로 발송되었다.⁴⁰⁾

- 북사할린 방어계획

- a) 아르코보와 두에 양 거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18km 구간의 방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두 개의 경계부대를 배치한다. 즉, 아르코보에 제4민병대(소총수 182명), 두에에 제3민병대와 제4민병대(소총수 도합 400명) 그리고 두에 지역부대(소총수 400명) 등 총 982명의 병력을 배치한다.
- b) 알렉산드롭스크 지역부대(소총수 700명), 제1, 2, 5, 6민병대(소총수 1,040명), 대포 8문으로 이루어진 포병중대 등 총 병력 1,740명과 대포 8문으로 구성된 주력부대를 알렉산드롭스크 거점에 집결시킨다.
- c) 적 함정이 접안할 경우, 부대를 엄호한다. 연안방어용 무기가 없음을 고려하여 적 함선과의 교전을 피한다.
- d) 적군의 의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적당한 진지를 선택하여 그곳에 주둔한다.
- e) 적군이 섬에 상륙한 후에는 결전을 피한다. 모든 퇴각로를 파괴한다. 빨치산 방식으로 측면과 후방에서 공격하여 적의 진격을 막는다.
- f) 적이 리코프스코예 촌을 점령할 경우 최대한 저항하면서 오노르(Онор) 촌을 향해 남쪽으로 퇴각한다.

40) Станислав Н. Урсын-прушински, там же. сс.58~59.

- 남사할린 방어계획

- a) 병력(소총수 1,500명)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여 일본군이 상륙할 수 있는 모든 지점에 보루를 설치한다. 코르사코프에는 그 지역 부대, 2개 민병대(소총수 700명), 비정규군 포병중대(대포 4문)를 배치한다. 솔로비요프카 촌과 나이부치 거점에는 각각 1개 민병대(소총수 200명)를 배치한다.
- b) 일본군이 코르사코프나 솔로비요프카에 상륙할 경우, 그곳에 배치된 부대는 전투를 벌이며 블라디미로프카와 나이부치 쪽으로 돌파한 다음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한다.
- c) 만약 일본군이 나이부치에 상륙하여 블라디미로프카로 향할 경우, 나이부치 지역 부대는 나중에 일본군을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북쪽의 세라로코(Серапоко)⁴¹⁾ 촌으로 돌파한다.
- d) 일본군이 나이부치, 세라로코 쿠순나이(Кусуннай)로 동시에 상륙하여 부대가 고립되는 비관적 상황에 처할 경우, 각 부대는 대포와 수송수단을 버리고 블라디미로프카 동쪽에 위치한 밀림 속으로 후퇴한 후 그곳에서 빨치산 전투를 수행한다.

위 방어계획은 일본군의 상륙 지점을 예상한 것 등에서 랴푸노프 자신이 처음에 작성한 방어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전투 방식도 정규군에 의한 전면전이 아닌, 빨치산 방식의 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르 군관구 참모부의 방어계획⁴²⁾과도 맥을 같이한다. 부족한 병력이라는 현실로 사할린 방어라는 이상적 목표를 실현하려다 보니까 ‘선 후퇴, 후 (빨치산 방식의) 공격’이라는 공식이 나온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할지라도 공격에 ‘후퇴 후’라는 전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전투에 임하는 부대들이 전투를 쉽게

41) 돌린스키 지구에 있는 브즈모리예(Взморье)의 북쪽에 위치.

42) РГВИА, Ф.487, ед.хр.914, л.2.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랴푸노프는 위와 같은 내용의 방어계획을 제출한 후, 아무르 군관구 참모부로 다시 한 번 전문을 발송하여 자신의 계획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랴푸노프는 앞에 언급된 아무르 군관구 참모부의 훈령이 전달되자, 그것을 검토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여 아무르 군관구 참모부로 발송했다.

1. 므가치와 냥페를 연결하는 선의 이북에는 도로가 없다. 따라서 북사할린에서 3개 민병대를 운용하는 것은 합목적적이지 않다. 여름철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오솔길만 있으며, 겨울에는 그 오솔길을 따라 개가 끄는 썰매가 다닐 수 있다.
2. 토크코프스코예와 오노르 촌에서 주력부대가 후퇴할 때 적을 후방에서 공격하려면 북부지구에 2개 민병대를 파병해야만 한다.
3. 아그네보에서 한다수 1(Хандасу-1) 사이에는 사람 한 명도 다니기 힘든 오솔길 하나가 있을 뿐이다.
4. 카미쇼비(Камышовый)와 필렌스키(Пиленский) 고개를 지나는 길에는 3월 말까지 많은 양의 눈이 녹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땅이 매우 단단하게 얼어붙는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보루 건설작업에 착수할 수 없다.
5. 제대로 된 빨치산 부대를 조직하는 것은 만주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에서 장교가 파견된 다음에야 가능하다.
6. 부대와 연안 경계초소 간의 통신을 확보하려면 유능한 지휘관을 선별해야 한다.⁴³⁾

43) Станислав Н. Урсын-прушински, там же, сс.59~60.

랴푸노프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방어계획이 사할린 현지 사정에 더욱 적절한 것임을 호소하는 동시에, 자신의 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일종의 시위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랴푸노프의 전문을 받아 본 아무르 군관구는 그의 방어계획을 대부분 승인해 주었다. 그러나 부대를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 배치하는 것은 합목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남사할린 빨치산 부대에겐 전쟁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코르사코프 지구에 남아 항전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즉, 종전의 시점까지 사할린을 러시아의 영토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비록 ‘선 후퇴’가 규정된 방어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랴푸노프와 아무르 군관구가 각각 제시한 방어계획의 기본 개념은 사할린을 러시아 영토로 남겨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섬을 버리고 후퇴하라는 명령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기본 개념을 무시하는 명령이 하달되면서 사할린 방어계획의 의미가 상당히 축소, 퇴색되었다. 즉 일본군의 상륙이 이루어지기 얼마 전, 만주군 총사령관인 리네비치 장군은 새로운 지령을 하달하여, 만약 일본군이 러시아 부대를 추적하기 시작하면 부대는 포기비(Погибь) 갑⁴⁴)으로 퇴각한 후, 그곳에서 어뢰정의 호위를 받는 수송선에 승선하여 육지로 후퇴하라는 것이었다. 리네비치의 이런 명령은 사할린 방어대의 전투의욕을 꺾는 것은 물론, 소극적 전투와 도주에 가까운 후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사할린 방어계획에 따라 수립된 보루 건설 계획은 프리아무르 총독 리네비치와 알렉세예프 극동총독 그리고 육군대신 쿠로파트킨 간의 교신이 지연되면서 전쟁 직전까지 단 하나도 실행되지 못했다. 만주에서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한 랴푸노프는 자신이 직접 야전보루 건설계획을 작성했다. 그러나 그의 계획 역시 기초적

44) 대륙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점이다.

인 것에 불과했다. 후일 북사할린에는 두에서부터 폴로브니키(Половники) 촌에 이르는 사할린의 서해안을 따라 소총용 및 대포용 참호가 구축되었으며, 남사할린의 코르사코프 거점과 솔로비요프카(Соловьевка) 촌 그리고 블라디미로프카(Владимировка) 촌에도 비슷한 형태의 참호가 구축되었다.⁴⁵⁾ 이런 정도의 전투 준비로는 사실 정규전이 불가능했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푸노프는 애초에 빨치산 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사할린 주둔 러시아 군사력

1904년 1월 28일 사할린에서 동원령이 발효되었다. 바로 그 날 극동총독 알렉세예프는 의용민병대를 조직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각 부대 당 정원 200명에 베르당 소총을 개인화기로 하는 민병대가 북사할린에 8개 그리고 남사할린에 4개 조직되었다.⁴⁶⁾

당시 민병대를 조직하면서 군은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즉 민병대에서 힘든 노동을 2개월 동안 할 경우 유형소에서 1년 동안 일한 것으로 계산해 주었으며,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에는 4개월의 노동을 1년으로 쳐 주었다.⁴⁷⁾

부대원은 주로 사냥꾼, 종신 유형수, 단기 유형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단기 유형수가 주력을 형성했다. 부대원들 중에는 노인이 많아서 근력이 병사로서 요구되는 수준 이하였다. 그에 더하여

45) Н.А. Левицкий . Там же, с.312.

46) РГВИА, ф.487, ед.зр. 914, л.5.

47) Латышев В.М. Там же. с.56. 1905년에는 이런 조건이 더욱 유리하게 적용되었다.

부대원들은 형무소 작업으로 훈련을 받을 여유조차 없었다. 부대 구성원의 신체적 조건 외에도, 정신적 조건 역시 최악이었다. 사할린으로 유배된 정치범, 즉 사상범에게 애국심을 주입하고 사할린 방어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 러시아의 전쟁사학자 레비츠키는 이에 대해 “부대 주력이 죄수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군 지휘부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규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⁴⁸⁾

1905년 여름 강제노동형기 문제로 특혜를 받으려고 복무 중이던 민병대원 중 다수가 다양한 핑계를 들어 군역을 면제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사할린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병대원의 수가 두 배나 줄었다. 후일 본토에서 증원부대가 도착하면서, 모든 부대는 예비대대에 편입되었다.

북사할린에는 기관총 8정을 갖춘 기관총 중대가 그리고 남사할린에는 4정의 기관총을 갖춘 중대가 각각 증원되었다. 1904년 여름 대포 8문을 보유한 포병중대가 북사할린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회전 장치가 없는 1877년 식의 구형(舊形)이어서 포사격이 매우 불편했으며, 대포 이동용 축력인 말도 부족했다.

1904년 빨치산 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뒤 지휘관의 역할이 교도소 관리직원으로부터 만주 주둔 러시아 육군 출신의 장교들에게 넘어갔다. 1905년 3월과 4월 사이에 만주에 주둔 중인 러시아 육군에서 차출된 장교들이 사할린으로 파견되었다. 새로이 부임한 장교들은 민병대의 지휘권을 접수하는 동시에 사할린 방어대의 전투준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들의 부임 시기가 너무 늦어 부대원을 충분히 훈련시키고 조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에 더하여 사할린 사령관 라푸노프 육군중장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구체적인 개선 결과를 생산해내지

48) Н.А. Левицкий. там же, сс.311-312.

못했다.

남사할린에서 조직된 4개 민병대는 비코프⁴⁹⁾ 대위가 지휘권을 이양 받은 병력 216명의 제1민병대(제1시베리아 스레텐스키[Сре́тенский] 연대 소속), 다이르스키⁵⁰⁾ 준대위가 지휘권을 이양 받은 병력 176명의 제2민병대(제1동시베리아 전열연대 소속), 폴루보트코(Полуботко) 대위가 지휘권을 이양 받은 병력 172명의 제3민병대(제10시베리아 옴스크[Омск] 보병연대 소속), 그로토 슬레피콥스키⁵¹⁾ 준대위가 지휘권을 이양 받은 병력 175명의 제4민병대(즐라투우스토프스키[Златоустовский] 243 연대 소속) 등이었다. 이외에 총참모부 소속의 카자노비치(Казанович) 대령을 지휘관으로 삼아 코르사코프에 배치된 예비대대에는 병력 330명, 기병대 소속의 기병대원 76명, 47밀리 대포 2문, 대포 4문으로 구성된 비정규 포병대대, 기관총 4정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⁵²⁾

북사할린에서 조직된 민병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병력 330명으로 구성된 알렉산드롭스키 예비대대, 병력 490명으로 구성된 두이스키 예비대대(490명), 병력 440명으로 구성된 티모프스키 예비

49) 비코프 바실리 페트로비치(Быков Василий Петрович, 1858-?). 체르니고프(Чернигов) 현의 귀족집안 출신. 어린 시절을 브란스카야(Брянская) 주의 숲속에서 지냈다. 따라서 타이가 속에서도 방위를 잃지 않았다. 병사로 육군 복무를 시작했으며, 키예프 유년보병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었다. 1904년부터 만주에 주둔 중이던 제1시베리아보병연대 소속의 육군 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05년 1월 사할린 파병 장교로 선발되었다.

50) 다이르스키 울리야스 데블레트 무르자(Даирский Ульяс-Девлет Мурза, 1869-?) 타브리체스카야(Таврическая) 현의 귀족 집안 출신. 병사로 군복무를 시작하여 나중에 오데사 유년보병학교를 졸업했다. 1905년 만주에서 활동 중이던 부대에서 선발되어 사할린으로 향했다.

51) 그로토 슬레피콥스키 브로니슬라브 블라디슬라보비치(Гротто Слепиковский Бронислав Владиславович, 1863-1905) 프스코프(Псков) 주의 귀족집안 출신. 병사로 군복무를 시작했으나 후일 빌렌스코예(Вилеское) 유년보병학교를 졸업한 후 장교가 되었다. 1904년 만주에서 활동 중이던 즐라투우스키(Златоустовский) 보병연대에서 복무하다 1905년 1월 사할린으로 파병되었다.

52) Урсун-Прушински С.Н. там же. с.55

대대, 병력 985명으로 구성된 제1사할린대대, 니콜라엠프스키 방어보병연대 소속으로 병력 880명을 보유한 제2대대, 병력 각 220명으로 구성된 제1민병대, 제2민병대, 제3민병대, 제4민병대, 병력 각 173명으로 구성된 제5민병대와 제6민병대, 병력 218명으로 구성된 제7민병대, 병력 216명으로 구성된 제8민병대. 5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기병대. 대포 8문으로 구성된 비정규포병대대, 그리고 기관총 8정이 있었다.

이처럼 사할린 방어부대의 총 군사력은 보병 6,404명에 기병 126명, 대포 14문, 기관총 12문이었다. 또한 3열식 자동장전 기관총을 갖추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어대가 보유한 대포는 구식이었으며, 그에 더해 보유한 대포의 수도 절대 부족이었다. 심지어 일부 대포는 수리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남사할린 방어대와 북사할린 방어대가 보유한 포탄 역시 각각 384발과 455발에 불과했다. 실제 개전 후 일본군과 포격전을 벌이던 러시아 포병들은 포탄이 고갈되자 어쩔 수 없이 직접 대포를 파괴하기도 했다.

하바롭스크의 참모부로부터 사할린 방어와 관련하여 빨치산 식 전투를 수행하라는 명령⁵³⁾을 접수한 사할린 방어대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대를 재편성해야 했다. 이에 민병대와 코르사코프 예비대대의 병력으로 5개의 빨치산 부대가 편성되었으며, 각 부대에 활동 지역도 제시되었다.⁵⁴⁾

제1빨치산부대는 카자노비치(Казанович)⁵⁵⁾ 대령의 지휘 하에 코르사코프 예비대대(약 200명), 비정규 코르사코프 포병중대(대포 4문, 포병 64명), 47mm포병소대(대포 2문, 포병 22명), 기관

53) 참모부는 이런 명령과 함께 40베르스타(약 1.067km) 축적의 지도를 동봉하여 보내면서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는 지형들을 지목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이행하기 매우 힘든 것이었다. Латышев В.М. Там же. с.57.

54) Латышев В.М. Там же. сс.57-58.

55) 그가 임기를 만료한 후에는 코르사코프 예비대대의 지휘관이자 남사할린 방어 책임자였던 아르치셰프스키(Артишевский) 대령이 지휘관에 임명되었다.

총부대(3정, 병력 40명), 민병기병대(51명), 백카레비치 민병기병대(50명) 등으로 편성되었다. 이 부대에게 배정된 활동 지역은 달닉(Дальний) 촌 근교에서 무라브첸카(Муравченка) 강을 따르는 숲속이었다.

제2빨치산부대는 그로토 슬레피콥스키 준대위의 지휘 하에 제4민병대(168명), 기관총 1정, 민병기병대(10명) 등으로 편성되었다. 배정된 활동 지역은 체피산(Чеписань)⁵⁶ 촌에서부터 투나이치(Тунай чь) 호수까지였다.

제3빨치산부대는 폴루보트코 대위의 지휘 하에 제3민병대(150명), 민병기병대(7명)로 편성되었으며, 배정된 활동 지역은 세바스티야노프카(Севастьяновка) 촌 근교였다.

제4빨치산부대는 다이르스키 준대위의 지휘 하에 제2민병대(176명), 민병기병대(8명)로 편성되었다. 배정된 활동 지역은 류토가(Лютота)⁵⁷의 계곡이었으며, 페트로파블로프스크(Петропавловск) 촌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5빨치산부대는 비코프 대위의 지휘 하에 제1민병대(216명)와 민병기병대(10명)로 편성되었다. 배정된 활동 지역은 나이바(Най ба) 강의 계곡이었다. 이 부대는 나이부치(Най буць) 골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상의 부대 외에도 제2민병대원에서 선발된 50명의 병력이 모르드비노프(Мордвинов) 소위의 지휘 하에 등대 방어를 목적으로 남사할린의 크릴리온 갑에 배치되었다. 코수나이(Косунай) 촌의 서부와 동부 연안을 따라 소규모 초소가 배치되었다.

남사할린 방어부대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순양함 ‘노비크’ 호에 승선 중이었던 막시모프(Максимов) 해군중위와 그 휘하 병력이

56) 현재의 지명은 오제르스크(Озерск)이다.

57) 아니바(Анива) 시의 북쪽에 위치.

남사할린 수비대에 편입되었다. 이 병력은 ‘노비크’ 호에서 장비와 무기를 분리하여 방어부대에 재배치했다.⁵⁸⁾ 잘 훈련된 병사들과 47mm 대포 1문 그리고 120mm 대포 1문으로 2개 포병중대를 구성했다. 장갑순양함 ‘임페라토르 알렉산드르 III세(Император Александр III)’ 호 소속의 레이만(Лей ман) 소위보와 병력 10명이 막시모프의 휘하로 편입되었다. 이상 남사할린 방어대의 군사력은 병력 1,200명에 대포 10문, 기관총 4정이었다. 일본의 군사력과 비교하면 절대적 열세여서 적군을 상대로 한 정규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5. 사할린전투의 교훈과 성격(결론을 대신하여)

사할린전투는 매우 소규모의 전투였다. 따라서 러일전쟁의 전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일본의 사할린 침공 역시 군사전략적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강화회담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그 규모와는 상관없이 사할린전투는 러시아와 우리나라 모두에게 매우 값진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다. 여기서는 그 많은 교훈들 중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부대 구성원의 자질이다. 사할린전투에 참전한 민병대원들은 죄수들로 이루어졌다. 그들에게 사할린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었으며, 죄수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주지 않았던 행정당국은 증오의 대상이었다. 죄수들에게는 감옥인 유형지와

58) РГАВМФ, ф.417, оп.1, д.2997, лл.33-34.

자신을 차별대우하는 행정당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었다. 애국심이나 충성심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로토 슬레피콥스키, 다이르스키, 빅코프 등이 지휘하는 민병대는 효과적으로 전투를 치르면서 일본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전과(戰果)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대를 지휘하던 장교들은 자신의 민병대원들이 일본군보다 사할린 주민에게 더 위협한 존재임을 깨달았다.⁵⁹⁾

두 번째 교훈은 부대 구성원, 즉 각 병사들의 전문성이다. 군인은 기초체력부터 시작하여, 사격, 총검술, 지형지물 이용법 등의 전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할린 민병대원들은 죄수들로 이루어졌다. 더구나 징집 후에도 군사훈련보다는 각종 작업에 더 많이 동원되었다. 군사 외적인 일로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뜻이다. 북사할린과 남사할린의 예비대대는 1905년 3월, 즉 만주에서 육군 장교들이 사할린에 입도한 이후에 조직되었다. 예비대원 모두 가정 을 가진 남자들로 평균 5~6명의 자녀들 두고 있었으며, 중간 연령 이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수명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나이였던 35~36세였다. 예비대대의 구성원들 역시 군사훈련보다는 각종 작업에 동원되었다. 따라서 예비대대를 현실적인 전투력으로 고려할 수 없었다.

세 번째 교훈은 지형지물 숙지이다. 공격 측보다 방어 측이 시가전은 물론 산악전에서도 더 유리한 이유는 도시의 구조와 산악의 지형지물을 더 잘 알고 있고,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방어 측이 감제고지가 될 만한 곳을 미리 골라, 적보다 먼저 그곳에 진지를 구축하면, 적군을 상대로 강력한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할린의 2/3가 산악지대임을 고려하면, 지리를 숙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점을 지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 Урсун-Прушински С.Н. там же, с.56.

북사할린의 제1사할린대대가 대륙에서 사할린으로 파병된 시점이 1905년 7월 14일이었다. 사할린의 지형지물과 진지의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방어 측이 지닐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공격하는 일본군과 지형 숙지에서는 비슷한 조건에서, 그리고 군사력에서는 절대적 열세인 상태로 전투를 치렀다.

네 번째 교훈은 적절한 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투에서 공격과 방어 양측 모두에게 보급은 중요한 문제이다. 러시아군은 수송용 마차를 모두 니콜라예프스크 나 아무레(Николаевск-на-Амуре)에 놔둔 채 군수품만 지니고 입도했다. 따라서 적과 교전하다 후퇴할 때 군수품 운송이 부대원에게 엄청난 하중으로 작용했다. 결국 지휘부는 8일 분량의 건빵, 보리 알곡 심지어 2천 발의 탄환 등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전투력이 더 약화되는 악순환을 겪어야 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작전명령이다. 러시아군 지휘부는 애초부터 퇴각과 빨치산 식 투쟁이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 명령은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이었다. 우선, 전투도 시작하기 전에 내려진 이런 명령은 병사들의 전투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실제로 전투에서 러시아 병사들은 적당히 투쟁하다 퇴각했다. 명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 임하는 군인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울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후퇴가 하등 잘 못된 것이 없는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각 부대는 손쉽게 후퇴를 결정했으며, 더 이상 도피할 곳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가면 적에게 항복해 버리는 무기력함을 보여주었다. 잘못된 작전명령이 패전을 잉태하고 낳았던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런 명령은 섬이라는 지형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 넓은 대륙이 아닌 섬은 도주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섬에서의 전투는 그곳을 사수하느냐의 여부가

전투에서의 승패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도 후퇴를 허용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실책이었다. 실전에서 러시아군은 도망칠 곳이 없어지자 리네비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대륙으로 건너가 버림으로써 자기 나라의 영토를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 잘못된 명령이 자국 영토를 포기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교훈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술이다. 사할린 방어부대에 내려진 명령은 러시아에서 ‘조국전쟁’이라 불리는 1812년의 나폴레옹전쟁 당시에 적용되었던 전술에 의거하고 있었다. 대체적인 내용은 야간에 행동할 것을 권고하면서 급작스럽게 적의 측면과 후방 그리고 보급부대를 공격하라는 것이었다.⁶⁰⁾ 쿠로파트킨이 만주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한 것도 적이 짧은 전선에 집결하도록 만든 다음, 대규모 병력으로 멋진 보병대열을 갖추어 파도처럼 적을 휩쓸어 버린다는 나폴레옹전쟁 당시의 전술에 따른 것이었다.⁶¹⁾ 러시아군 지휘부는 약 1세기의 시간을 무시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가 독일에게 무력하게 당한 것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전술은 무기와 지형에 맞는 것으로 다시 고쳐져야 한다. 당시에는 이미 기관총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적용되고 있었다. 무기의 발달로 인해 멋진 보병대열은 대규모 희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빨치산 부대가 적의 보급부대를 공격하려면 산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것은 빨치산 식 투쟁의 비 적절성, 한계 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규군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다. 그런데 러시아군 지휘부는 그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일곱 번째 교훈은 적절한 방위력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할린은 러시아 본토 방어를 위해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는 일종의 완충지대였다. 또한 그곳에 매장된 지하자원과 생물자원의

60) 『Командировка на Сахалин в 1905 году. Военный сборник』, 1906, No.11, c.171.

61) 일본과의 강화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가 바로 쿠로파트킨이었다.

경제적 가치 역시 막대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면 그 지위에 부응하는 정도의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했다. 적의 침공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맞는 적절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따라서 사할린전투에서의 패전 원인은 전투부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무능한 지휘부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덟 번째 교훈은 자국 영토 방위의 중요성이다. 러시아는 사할린 방어에 실패했으며,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을 할양이라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를 패전국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러일전쟁의 말기에 가면, 일본의 패색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⁶²⁾ 그런 일본이 승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할양”이었다.

사할린전투는 군사적 측면에서 소규모 전투였고, 러일전쟁 자체의 진행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위와 같은 매우 값진 교훈을 찾을 수 있었다. 즉 견고하게 조직되지 못한 부대와 전투원의 저급한 자질,⁶³⁾ 병사들의 낮은 사기, 시대와 지형에 맞지 않는 명령, 지형지물의 미숙지, 적절한 수송수단의 미비, 능동적 방어전 수행에 필요한 적정 군사력의 부재, 유비무환 정신의 결여 등이 패전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섬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제주도, 울릉도,

62) 전쟁 말기 제1시베리아군단의 방어지에서 일본군 1개 중대 전체가 러시아군에 투항했다. А. Куропаткин, 『Отчет генерала Куропаткина』, т.4, Итоги войны, Варшава, 1906, с.409; 또한 일본의 한 연대는 공격 명령을 거부했다. 일본 국내에서도 종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Ю. В. Норригаард, 『Великая осада Порт-Аргур и его падение』, СПб., 1906, с.268.

63) 러시아 병사들 내에는 문맹이 많았으며, 교육 수준도 매우 낮았다. 따라서 지휘관이 하달하는 명령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독도, 백령도 등의 방어를 위해 사할린전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할린전투가 지닌 정치적 의미는 전투의 규모에 비해 막대한 것이었다. 즉 러시아는 영토 할양으로 패전의 이미지를 쓸 수밖에 없었으며, 반대로 일본은 유럽의 강대국을 이긴 최초의 아시아국가라는 신흥 강국의 이미지를 획득했다. 만주라는 주된 전쟁터에서 더 큰 전쟁수행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러시아가 패전국처럼 되어 버렸다.

한 번 할양된 영토를 다시 수복하는 것은 지난한 과제이다. 러일 전쟁 종전 40년 후, 이미 제정러시아가 아닌 소연방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을 상대로 개전하고, 승리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토였던 사할린을 되찾아 올 수 있었다. 전쟁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실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한국은 반도라는 지역에 자리 잡은 지정학적 특성과 분단이라는 정치적 특성 양자로 인해 대륙과 단절된 실질적인 도서 국가이다. 우리에게서는 후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지형 자체가 ‘배수의 진’이다. 달리 표현하면 코너에 몰려 있는 형세다. 그런 이유에서 사할린 전투는 전쟁 발발 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교훈과 함께 중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앞으로 사할린전투를 더 자세하게 연구해야 하는 의미와 그 연구가 갖게 될 가치가 적지 않다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원고투고일: 2015.10.3, 심사수정일: 2015.11.18, 게재확정일: 2015.11.20.]

주제어 : 남사할린, 북사할린, 사할린전투, 민병대, 빨치산, 알렉산드롭스크, 코르사코프, 블라디미로프카

<ABSTRACT>

A Study on Sakhalin Battle

Kim Jong-he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examination of military and political meaning and lessons learned of Sakhalin battle, comparatively small scale battle in military perspective.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of the articl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battle preparation of Russian Empire to Sakhalin battle. This analysis is a synonym with causes of the Russian defeat in this battle, because we can get various lessons.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cause of russian defeat.

Sakhalin battle is a vivid example that clearly shows us military lessons needed for the victory. The following things are such as these; competent commanding group, well-trained troops qualified the capability for the Execution of operations, well-informed about natural and man-made features on the battlefield, tactics suitable for weapons and battlefield, possession of proper military force, careful preparation for war and etc.

Political meaning of Sakhalin battle is huge. There were no victorious nation and also no defeated nation in Sakhalin battle. But Russia had gotten images of the defeated state by cession of her own territory to Japan. And it took 40 years to recover the ceded territory.

Republic of Korea is a peninsular state but actually is a kind of island state because of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We have no space for retreat. So Sakhalin battle is important researching subject for the construction of strategic defence program.

Key Words : South Sakhalin, North Sakhalin, Sakhalin battle, militia, partizan, Aleksandrovk, Korsakov, Vladimirovka